울산 굴화 · 강동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우리 회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4월 8일 울산광역시에서 발주한 '울산 굴화 · 강동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6번지 일원에 47,000㎥/일 규모의 처리시설 및 관거 6.46㎞, 중계 펌프장 3개소 설치와 울산시 북구 산하동 615번지에 5,000㎥/일 규모의 처리시설 및 관거 33.14㎞, 중계펌프장 14개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총 공사비는 930억원(우리 지분 20%, 186억원)이며 공사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0개월, 운영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31년 3월까지 20년이다.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첫 번째 성과인 이번 사업은 우리 회사 환경관련 신기술의 대외 인지도 향상은 물론 향후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수주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강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우리 회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4월 4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발주한 '한강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사업' 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 최초로 추진된 이 사업은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 잠수교 남단 수상에서 연면적 9,209㎡ 규모의 인공섬 3개소 및 연결다리(786㎡), 계류시설 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총 공사비는 566억원(우리 지분 15%, 85억원)이며 공사기간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6개월, 운영기간은 2009년 10월부터 2028년 9월까지 20년이다. 한강 플로팅 아일랜드는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친환경 문화 · 레저시설로 제 1섬은 공연문화, 제 2섬은 엔터테인먼트, 제 3섬은 수상레저 공간으로 조성되며 한강 주변경관에 LED 글래스를 이용한 야간조명이 더해져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

우리 회사 서호모 상무(국내토목 PM, 토목본부 영업, 업무부, 토목기술영업부 담당임원)가 3월 28일 '제 11회 토목의 날' 행사에서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서 상무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제1공구) 수행시 역사이펀 관거내 침전방지기술, 역경사 · 역차단 사공간 채움공법 등 독창적 하수관거 개선기술의 특허를 출원해 취득한 바 있으며, 국내 지하철 공사 중 가장 어렵다는 서울지하철 913공구 건설공사를 현장에서 지휘하면서 세계 최초로 TRcM공법과 CA 공법을 동시 적용해 전 세계 터널전문가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토목기술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회사 자체 품질관리 점검반, 품질감사, 안전지도 점검반 등의 조직을 별도 운영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ISO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 및 토목시공 선진화를 위해 노력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한편 토목기술인의 업적을 평가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 곽결호 대한토목학회장 및 토목업계 임직원 1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 초청강연, 미래정책 토론회, 올해의 토목구조물 공모전, 토목시설물 모형경진대회, 디지털 포스터 경진대회, 참여 한마당, 축하 리셉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한국방재학회 기술상 수상

토목기술부 조현 부장이 2월 28일 서울시립대에서 개최된 '2008년도 한국방재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대회' 에서 기술상을 수상했다. 조 부장은 사면 및 터널의 안전시공을 위한 무진동 · 무소음 암반파쇄공법인 'SUPER WEDGE 공법(건설신기술 제 336호)' 등의 신기술을 개발해 건설현장에 적용했으며, G7 국책연구과제인 '고속전철 터널기술 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 대형

국책사업의 방재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현재 한국방재협회 주관의 '급경사지 관리 전문인 양성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관련 연구책임자로서 방재교육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며 시공사례와 연구성과 등을 주제로 국내 12건, 국외 10건의 논문발표 및 다수의 건설관련 학회 전문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등 국내 토목기술 발전에 기여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한편 문원경 소방방재청 청장, 이창수 한국방재협회 회장 등을 비롯한 학회 및 업계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개회식, 특별강연, 정기총회 및 시상식, 학술논문 발표, 리셉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협력업체 대표자 간담회 실시

우리 회사 고객서비스부가 2월 21일 본사 10층 대회의실에서 협력업체 초청 간담회를 실시했다. 협력업체에게 고객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하자발생 최소화를 위한 건의사항 수렴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고객서비스 담당 임원인 김강 상무와 건축공사부, 공무부, 구매관리부, 설비부, 전기부 등 관련부서 실무자 및 LG화학, KCC, 에넥스 등 주요 협력업체 22개사 대표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제안된 총 24건의 아이디어 중 측벽세대 외벽 단열재 시공방법 개선안, 외부창호(창호, 유리, 코킹) 통합 발주안 등은 각각 에너지 효율 상승과 품질 및 사후관리가 용이해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행사를 실시하고, 특히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협력업체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고객서비스부는 지난해 4월 아파트 브랜드 '쌍용 예가'의 고객 만족도 향상 및 차별화된 서비스 실행을 위해 A/S개념의 사후서비스와 B/S 개념의 사전서비스를 총괄하는 '행복상상' 브랜드를 탄생시켜 고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부평정수장 개량사업 1단계 공사 현장 준공식 및 인천시장 표창 수상

우리 회사가 시공한 부평정수장 개량사업 1단계 공사 현장(소장 · 최규만 차장)이 완공돼 2월 4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리 회사 김병호 사장과 최규만 차장은 부평시의 안전하고 원활한 용수공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이번 개량사업을 통해 기존의 노후된 부평정수장 1공장이 1일 생산능력 15만t 규모의 현대식 정수시설로 탈바꿈하고, 팔당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풍납원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간 약 80여 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한국지반공학회 봄 학술발표회 참여 및 3건 발표

2008년 3월 28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한국지반공학회 봄 학술발표회가 개최되었다. 토목기술부에서는 「마이크로파일을 이용한 기초보강 공법의 국내활용 사례」, 「얕은 기초의 지지력 산정결과를 이용한 비교 및 분석에 관한 연구」와 「고결모래의 콘선단저항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의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수밀시험장치」특허출원 1건 및 저작권등록

2008년 4월 17일 「수밀시험장치」가 특허로 출원되었다. 또한 2008년 3월 17일에는 자양동 우성 2차아파트 리모델링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이 배치도외 17건이 등록되었다. 이로써 기술력 향상 및 설계의 독창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